“타이거즈는 인생의 길이었고 꿈이었다”

KIA 타이거즈의 10번째 우승을 합작했던 서재응과 최희섭이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한화의 경기에서 은퇴식을 가졌다. 서재응과 최희섭이 손을 흔들며 나란히 그라운드를 걷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굿바이 그라운드… 서재응·최희섭 은퇴식

2009년 우승 유니폼 입고
마지막 공 치고 던지고
“은퇴식 구단에 감사”
나란히 방송해설 시작
“KIA가 부르면 돌아올 것”

두 사람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그라운드와의 작별을 고했다. 삶의 길이었고, 꿈이었던 타이거즈에서 은퇴식을 하며 떠나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두 사람. ‘나이스 가이’ 서재응과 ‘빅초이’ 최희섭이 추억의 선수가 됐다. 두 사람은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한화의 경기를 통해 은퇴식을 갖고, 제 2의 인생을 출발했다 .

두 사람은 은퇴식을 기념해 제작된 2009년 우승 유니폼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다. 최희섭이 마운드, 서재응이 타석에 서서 그라운드위에서의 마지막 공을 던지고 쳤다. 광주일고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위해 모교 후배들은 이날 경기의 애국가를 불렀고, 아들들은 시구자로 나서 아빠를 응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같이 은퇴식을 하게된 소감이

서재응(이하 서) : 은퇴식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영광이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타자와 은퇴식을 하게 돼서 감사하다 .

최희섭(이하 최) : 같은 마음이다. 미국에서 재응이 형과 같이 은퇴식을 하게 돼서 좋다. 은퇴식 생각을 안 한 상태였는데 구단에 감사하다.

-우승당시 유니폼을 입고 은퇴식을 하는 기분은

서 : 나는 우승당시 별로 한 게 없다. 정근우하고 싸운 것 밖에 없다(웃음). 우승해보는 게 소원이었다.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들어가서 우승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우승 유니폼을 다시 입으니까 감회가 새롭다. 같이 야구를 했던 감독님, 코치님, 선수들 생각이 난다.

최 :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목표가 10번째 우승하는 것이었다. 좋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내 자신하고의 약속을 지켰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우승 말고 야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서 : 미국에서 처음 엔트리에 들었을 때다. 홈 개막전 때 1루 라인에 서서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때가 가장 생각난다. 한국에 와서는 (당시) 조범현 감독님과 이강철 투수 코치님을 만나서면서 투수에 대한 편견을 깼다는 것이다. ‘투수는 꼭 이런 폼으로 해야만 하고 이런 동작으로 해야 한다’그런 게 있었는데. 이강철 코치님하고 투구폼도 바꿨었고 새로 야구를 할 수 있었다.

최 : 빅리그에서 타자들이 실패한다는 편견을 깨고 한국 선수로서 뛰었고, 1루수로 역할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또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WBC 미국전에서 홈런쳐서 이겼던 것을 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재응이 형과도 이야기했는데 2009년 마지막 타석에서 스리런을 쳐서 30홈런 100타점을 했던 것도 생각난다.

-KIA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최 : 방송을 시작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김기태 감독님께서도 시간만 되면 항상 와서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라고 하셨다. 항상 마음 속에 KIA 타이거즈 잊지 않고 팀에 도움을 주고 싶다.

서 : 후배들 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크게 없다. 궂은 일을 내가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감싼다면 성적을 떠나서 팀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누구 하나가 튀어나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후 계획은

서 : 공부를 더하려고 방송을 하는 것이다. 막혔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KIA에서 불러주신다면 와야 한다. 가지고 있는 것을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다.

최 : 다음주부터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시즌 때 방송은 하겠지만 교육리그에서 미네소타와 좋은 관계 되어있어서 현장 연수도 계속 할 것이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KIA에서 좋은 코치로, 변화된 모습으로 현역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공부 많이 해서 복귀하고 싶다.

-타이거즈는 어떤 의미인가

서 :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면서 무조건 가야할 곳은 타이거즈라고 생각했었다. 삶의 길인 것 같다. 미국으로 가긴했지만 내가 돌아올 곳은 타이거즈라고 생각했고, 내가 찾아가야 할 길이었다.

최 : 타이거즈는 꿈이다. 선배님들이 우승도 많이 하셨고, 그 선배님들을 보면서 타이거즈에서 꼭 뛰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올 수 밖에 없는 곳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본 팀이고 꿈이고. 항상 마음속에 타이거즈가 있을 것 같다.

-메이저리거 1세대로서 요즘 후배들의 활약을 보는 기분은

서 : 대단하다. 편견을 깬 것이다. 강정호가 대단하고 부럽다. 미국에서 뛰면서 일본 선수들이 FA하고 와서 대우를 받는 게 부러웠다. 우리는 밑바닥부터 걸어오니까 핍박도 받아왔는데 한국 선수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자랑스럽다.

최 : 나는 타자쪽이니까. 당시에는 나하고 (추)신수하고 둘만 있어서 밀리는 기분이 있었는데 한국 타자들이 홈런도 많이 치고 그런 모습 보여서 자랑스럽다. 내가 예전에는 메이저 선수였다는 걸 잊고 있었는데 후배들이 진출해주면서 인터뷰도 많이 했고, 해설도 하게 됐다. 후배들 덕분에 그런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 후배들이 더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톡·톡

헥터 “볼넷 주면 벌금 내야”

▲벌금을 내야해서=헥터는 14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9이닝 5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8-0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헥터는 이날 사사구는 하나도 내주지 않은 무결점 투구로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사상 첫 무사사구 완봉승을 만들었다. 무사사구에 대한 헥터의 대답은 “볼넷을 주면 2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약속을 했다”였다. 앞선 두 차례의 등판에서 7개의 볼넷을 허용했던 헥터는 이대진 코치와 볼넷을 놓고 벌금 약속을 한 것이다. 로사리오와의 마지막 승부에서 스리볼까지 갔던 헥터는 “볼넷을 의식했다. 어차피 맞아야 홈런이라는 생각으로 직구를 한가운데로 던지려고 했고 결과가 좋았다”고 웃었다.

▲나는 그게 부끄러워서=15일 훈련 시간에 앞서 임시 미팅이 소집됐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수들이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투수 야수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단하게 스승의 날 선물 전달식과 인사를 한 뒤에야 시작된 이날 훈련. 하지만 김 감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유는 “그게 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질까봐”였다.

유동훈 “조만간 코치로 우승”

▲괜찮나요?=서재응과 최희섭의 은퇴식이 열린 15일 KIA 선수단은 2009년 우승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다. 상의는 물론 하의, 모자까지 그대로 2009년으로 돌아갔다. 2009년 우승 멤버인 유동훈 코치는 훈련 시간부터 옛 유니폼을 차려입고 나와서 향수에 젖었다. “잘 어울리냐?”면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한 유 코치는 “다시 또 우승을 하고 싶다. 곧 가능할 것이다”며 웃었다. 2009년 한국시리즈에 이어 다시 우승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양현종, 곽정철, 정용운, 나지완 4명이었다. 당시 우승의 기쁨을 함께했던 차일목과 이용규는 상대 선수로 이날 경기를 치렀다. 코치 중에서는 유동훈 코치와 함께 김종국·이대진 코치가 우승멤버다.

“병현이 더 하겠다 하더라”

▲더 하겠다는데=서재응과 최희섭은 은퇴식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 자리를 가졌다.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인터뷰. ‘광주일고 빅리거 3인방’의 남은 멤버 김병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서재응은 “병현이랑 통화해봤는데 야구 더 하겠다고 하더라”며 호탕한 웃음을 지었다. 최희섭은 “내 전화는 안 받던데”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이들은 광주일고 당시 3학년 서재응, 2학년 김병현, 1학년 최희섭의 최강 라인업을 구축했었다. 이날 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이 두 선배를 위해 애국가를 불렀고, 서재응과 광주일고 배터리를 구성했던 김상훈 2군 배터리 코치는 우승 세러모니를 재연하며 두 사람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광주일고 출신의 한화 투수 장민재도 후배들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하는 등 광주일고의 날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한화전 싹쓸이 ‘5연승 질주’

양현종 8경기만에 첫 승
헥터 외국인 무사사구 첫 완봉

‘싹쓸이 승’의 중심에 사연 많은 선발투수들이 있었다.

KIA는 지난 주말 한화와의 홈 3연전에서 시즌 두 번째 싹쓸이 승을 거뒀다. 앞선 kt와의 두 경기까지 더하면 5연승. KIA의 선발들이 주말 3연전 내내 화제의 인물이 됐다.

첫날은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양현종과 특급 외국인 선수 로저스의 맞대결이 전개됐다. 특히 양현종의 8번째 첫 승 도전무대라서 더 관심이 쏠렸다.

이날 로저스가 수비진의 실책 속에 고독한 싸움을 하며 6.2이닝4실점(2자책)을 기록했고, 양현종은 7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4-2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7전 8기 끝에 이룬 승리 앞에서 양현종은 “타자들이 내 등판경기에서 점수를 뽑아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자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팠는데 앞으로는 편하게 경기를 하면 좋겠다”며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14일 두 번째 경기가 끝난 뒤에는 라커룸에 박수 소리가 울려퍼졌다. 수훈선수 인터뷰가 끝나고 가장 늦게 라커룸 문을 연 헥터를 맞이하는 소리였다. 이날 헥터는 나홀로 9이닝을 소화했다. 9회까지 베이스를 밟은 한화 타자는 5명, 홈을 밟은 이는 없었다. 무엇보다 헥터는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역사상 첫 무사사구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헥터가 완벽하게 마운드를 지키자 타자들은 장단 12안타로 8점을 뽑아냈고, 강한울과 김주형은 호수비로 헥터의 완봉승에 함께 했다. 헥터는 “던지려고 했던 대로 잘 던졌고, 완투는 했지만 피곤하지 않고 좋다. 앞으로도 잘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지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15일에는 최고령 우완 선발투수 기록이 작성됐다.

윤석민·임준혁 두 선발투수의 부상 속에 최영필(42)이 임시 선발로 서재응과 최희섭의 은퇴식 경기 선발로 출격했다. 은퇴식 주인공들보다 나이가 많은 선발투수의 등장이었다. 2096일 만에 선발로 나선 최영필은 3회 1사 1·2루에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최고령 선발에 대한 예우로 김기태 감독이 직접 투수 교체를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조계현 수석코치는 덕아웃 앞에서 가장 먼저 최영필을 맞이하며 물을 건넸다. 최고령 우완 선발투수의 기록은 2.1이닝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이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KIA는 8-7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

빛고을배 생활체육 궁도대회 2016 빛고을배 생활체육 3개정(亭) 궁도대회가 15일 광주시 남구 사동 관덕정(사두 선계일)에서 개최됐다. 광주시체육회 주최·광주시 궁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관덕정·무등정·송무정 사원(射員) 15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